

종교단체의 환경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 한국천주교를 중심으로 —

전 의 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동신대 교수)

I. 연구의 목적

환경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입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 1963년이었지만, 실제 집행에 필요한 「공해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67년이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입법이었던 것이다. 정부에서 환경문제를 그래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1979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이 본격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는 처음으로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명시한 '환경권'이 설정되었고,¹⁾ 같은 해, 환경청이 설립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1988년과 1989년 연이어 수돗물의 중금속 및 발암물질 포함시비가 계속되자 제6공화국 정부는 1990년을 환경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는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이 터졌으며, 1994년 초, 다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낙동강수질오염사

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환경문제가 정부의 조직 개편이나 급작스런 예산의 투입 등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진실되고 실질적인 인식의 변환이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바로 여기에 환경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1995년부터 적용될 제6차 교육과정에는 '환경', '환경과학'이 중, 고등학교 독립교과목으로 개설됨으로써, 환경교육의 내용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사회활동으로 환경오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일반 국민들은 학교과정을 이미 수료하였으므로, 이러한 학교 환경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사회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본 논문에서는 종교단체에서의 환경교육 특히, 한국천주교의 환경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1) 제5공화국 헌법(1980), 제33조

II. 환경문제에 대한 천주교의 인식

1. 환경문제에 대한 성서의 해석

천주교를 비롯한 서구 그리스도교 사상이 오늘의 생태계 위기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서구의 그리스도인들도 시인하고 있다.²⁾

또, 일부 학자는 그리스도교의 창조신학이 전세계 환경파괴, 오염을 포함한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 제1장에는 하느님께서 모두 칠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하느님은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날, 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날,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날, 짐승들과 사람을 지어내시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셨다. 일곱째날,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³⁾

특히, 여섯째날 자기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내신 하느님이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지배권)을 인간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간에 의한 ‘땅의 지배’가 “자연에 대한 정통적 그리스도교의 오만”을 유발시켰다고 미국의 역사학자 Lynn White가 1966년 주장하였다.

성서적인 ‘지배’ 개념에 대한 인간중심적 해석은 두 방향에서 큰 사상적 영향을 미쳤는데, 첫째는 자연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월성과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야기시킨 것

이며, 둘째는 창조 자체가 인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창조가 인간에게 유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대 기술에는 이와같은 사상의 두 방향이 그 본질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⁴⁾

따라서, 서구인들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믿었으며, 세계정복과 자연파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생태계 위기를 맞이하여, 앞서의 ‘창세기’ 귀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즉, 하느님의 모든 창조행위는 창조의 질서안에서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평화는 세가지 측면—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평화, 인간들 사이의 평화, 인간과 자연세계의 사이의 평화—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⁵⁾

2. 환경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환경문제에 대한 성서의 해석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다. 특히, 천주교와 같이 각 본당이 교구를 중심으로, 또 전세계의 교구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체제를 이루고 있는 종교단체에서 교회(지도자)들의 가르침은 교회 구성원(신자)들의 신앙생활 뿐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사목헌장」, 교황 바오로6세의 「민족들의 발전」(1967.3.26), 「노동헌장 반포 80주년」(1971.5.14), 요한 바오로 2세의 「인간의 구원자」(1979.3.4), 「사회적 관심」(1987.12.31) 등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다.⁶⁾

카톨릭교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지침이 될만한 것은 1990년 1월 1일 발표된 교

2) 심상태(1991).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 신앙. 신학전망, 92호, 101

3) 구약성서 창세기 1장

4) 박종대(1993). 그리스도와 환경위기. 환경운동연합 환경전문강좌자료, 1-2

5) WARC(세계개혁교회연맹) 서울대회보고서(1989).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대한기독교서회, 50-57

6) 박종대(1993). 위의 글. 3-4

황⁷⁾ 요한 바오로2세의 세계평화의 날 메세지인 「창조주 하느님과 평화, 모든 피조물들과의 평화」이다.⁸⁾

교황의 메세지는 ① 하느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메세지 3항-5항), ② 생태계의 위기, 도덕적 문제(메세지 6항-7항), ③ 해결책의 모색(메세지 8항-9항), ④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메세지 10항-14항), ⑤ 생태계의 위기, 공동의 책임(메세지 15항-17항)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메세지 각 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세지 3항): 인간은 창조주의 계획을 자의로 거슬러, 죄악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조화를 깨뜨렸다.

(메세지 4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와 하느님의 화해를 성취시켰으며,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⁹⁾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메세지 5항):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은 지구 자원의 관리나 합리적인 이용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환경파괴의 근본적 원인은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있다.

(메세지 6항): 생태계 위기를 과학기술발전의 무차별 적용으로 보고, 인류에게 혜택과 폐해를 동시에 준 과학기술발전에 의한 훼손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전인류 공동체, 즉, 개인과 국가와 국제 기구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메세지 7항): 환경오염이나 파괴는 인간경시에 이르는 비자연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세계관의 귀결이며, 생태계의 민감한 균형은 무절제한 동식물의 남획과 무분별한 자연 자원의 개발로 파괴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손실이 될 것이다.

(메세지 8항): 신학, 철학과 과학의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메세지 9항): 우주적 질서와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에서 지구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는 대기권과 생물권의 파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위험한 오염물질이나, 유독성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메세지 10항): 생태계 위기에 대한 개발도상국과 선진산업국 사이의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지도자들의 확신이 필요하다.

(메세지 11항): 빈곤의 구조적 해결 없이는 적절한 생태학적 균형을 모색할 수 없다.

(메세지 12항): 전쟁이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다.

(메세지 13항): 생활양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는 생태학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절제와 극기와 희생정신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 즉,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지구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다. 책임에 대한 참된 교육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진정한 회개를 수반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차원의 교육중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가정에서 어린이는 자기 이웃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메세지 14항): 창조의 미적 가치의 중요성, 자연과 인간의 만남 자체가 치유력을 갖고 있다. 훌륭한 미적 교육과 건강한 환경유지 사이의 관계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메세지 15항):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는 모든사람의 책임이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연과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메세지 16항):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존

7) 교황은 로마교구의 교구장 주교이며, 전세계 로마카톨릭의 통괄적 최고 사목자이다. 교황은 예수의 12 제자중 제1사도인 베드로의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현재의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264대 교황이다.

8)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0).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9) 피조물이란 그리스도교의 창조주인 하느님에 대비되는 말로서, 창조주가 창조한 세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

중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교황의 메세지중,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은 도덕성회복에 있다는(메세지 5항)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메세지 13항)과 오늘날 생태계 위기에 대한 교회 구성원의 의무와 참여를 강조한(메세지 15항)은 천주교 환경보전 운동 및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은 1991년 「창조질서 보전과 완성을 위한 공청회」 기조 연설에서 현대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파괴라고 지적하면서, 자연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문명의 주체는 인간이며, 물질문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 곧 인간의 심성, 인간의 도덕성이 파괴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동서양의 종교가 서로 합심하여 협력할 필요를 역설한 바 있다.

1992년 「제1회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 기조 강연에서도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파괴, 환경파괴라고 지적하면서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동시에 환경파괴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며, 모든 나라가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대교구의 강우일 주교는 1993년 「제2회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 기조강연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고 키우는 것은 자연이며, 자연이

지닌 생명력은 곧 하느님의 창조능력이라고 하였다.¹⁰⁾ 그래서 자연을 하나의 생명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주교는 환경운동을 생명운동이며, 인간성 회복운동이며, 창조질서 보전운동이라고 정의하고, 1993년 5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6개 종단이 함께한 「종교인평화회의」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네가지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를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것,

둘째,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

셋째,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족, 우리 동네라는 한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

넷째, 우리 세대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후손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1월 월간 「환경운동」과의 인터뷰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고 조화 공생의 관계이며,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사명이다.”라고 하였다. 또, “백마디 말보다는 작은 일 한가지라도 실천해야 한다.”라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동시에 연대와 기도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환경보전운동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전교구에서는 '94년도 사목목표를 “가정과 환경의 해”로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목교서의 ‘환경 정화와 보존’에 관한 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큰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생태계를 마구 파괴하고, ‘최고’를 숭상하는 허영심과 물질만능과 소비주의, ‘편안함’만을 찾는 이기주의는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썩게 하고,

10) 최두하(1994).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 제1회 청년환경학교 자료집

땅을 죽이고,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쌓이도록 만들어 인간과 지구 전체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공해'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좋은 '관리자'(창세기 1,28)가 되지 못하여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감소 또는 중지시킴으로써 생명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두려워 할 줄 하는 삶의 바탕위에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꾸미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광주대교구와 안동교구는 이미 '93년부터 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점차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자는 성탄 메시지 및 교구장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93년 성탄절에 발표된 광주대교구의 성탄 메시지에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의 삶에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도록 합시다. 또한 강생하신 구세주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정열과 구체적인 실천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닦고 우리의 농촌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원주교구의 '92년도 사목교서에서는 1992년을 “생명공동체의 해 -생명 사랑, 하느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생명 경시 풍조와 인간을 위시한 모든 생물이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로마서 8,22).”라는 바오로 사도의 탄식이 어울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탄식을 넘어서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다(창세기 1장)”고

하셨던 자연과 인간을 바르게 돌보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간 생명과 자연 생명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예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2년도를 “생명의 공동체의 해”로 정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천주교의 가르침은 교구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①한국천주교는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②환경오염의 원인을 인간의 속성, 도덕성 훼손 등 인간의 내면에서 찾고 있고, ③자연사랑(또는 환경회복)을 교회 구성원의 의무로 간주하고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III. 한국천주교의 환경교육 현황

1. 한국천주교의 환경보전운동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가 발표된 1990년,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세계대회’(JPIC)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한국 가톨릭 교회도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한 세상’의 건설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¹¹⁾

일반적인 환경운동에 앞서서 시작된 것이 오염된 땅을 되살리고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운동으로,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11) 최두하, 위의 책, 27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989년부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등 교육사업을 펴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생명운동(낙태반대등)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교구의 가톨릭환경연구소는 1992년부터 '아바나다'라는 회보를 발행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아바나다(아껴쓰고, 바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94년에는 신자들의 환경의식도 조사연구 사업과 자료수집에 전력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환경을 살리기 위한 소 공동체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 본부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하늘·땅·물·벗」모임, 대구대교구의 「푸른평화」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구지역에서 생명·환경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온 「푸른평화」는 발족 5년째에 접어들면서 저공해 세제공장 설립과 도농직거래, 협동조합 설립 등 협동조합을 통한 생활 자치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동안 한국천주교의 환경보전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면서도 임의단체에 불과했던 「하늘·땅·물·벗」은 1994년 2월 1일부터 서울대교구 산하 '한마음한몸운동' 본부 환경보전부로 독립되어 공식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땅·물·벗」이 1991년 6월 「창조질서 보전과 완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에 관심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모임이 태동된 이래 3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이며, 담당 부장신부를 맞이하여 한국천주교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한국천주교의 환경교육 현황

한국천주교의 환경운동은 1989년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신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장상수도연합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등의 세미나를 통해서도 환경에 관한 관심들이 고조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운동은 「하늘·땅·물·벗」이 결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199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은 현재, 한국천주교내 각 교구, 地區, 본당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 본부 환경보전부(「하늘·땅·물·벗」)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보전부의 환경교육에는 '자연학교', '청년 환경학교', '천주교 환경학교', '월례교육', '푸름을 만드는 잔치' 등이 있다.

1) 자연학교

자연학교는 국민학교 4학년~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자연학교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연학교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어린이 자연학교 2회, 청소년 자연학교 3회 모두 5회에 걸쳐 총 430명의 인원이 수료하였다.

〈표 1〉 천주교 자연학교 개설 현황

| 일 자 | 교 육 명 | 대 상 | 참가인원 | 장 소 | 비 고 |
|---------|--------------|---------|------|----------|----------|
| 92.8.10 | 제1회 어린이 자연학교 | 국4-6학년 | 70명 | 강원 홍천 서석 | 3박 4일 |
| 93.8.8 | 제2회 어린이 자연학교 | 국4-6학년 | 77명 | 강원 홍천 서석 | 3박 4일 |
| 93.1.26 | 제1회 청소년 자연학교 | 중 고 생 | 41명 | 산정호수 | 2박 3일 |
| 93.8.11 | 제2회 청소년 자연학교 | 중 고 생 | 42명 | 강원 홍천 서석 | 3박 4일 |
| 94.8.7 | 제3회 청소년 자연학교 | 중2예비신학생 | 200명 | 강원 화천 수동 | 3박4일, 2회 |

어린이 자연학교의 교육목표는 첫째, 어린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속에서 자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함으로써 생활속에서 자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셋째,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¹²⁾

교육과정은 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표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 천주교 어린이 자연학교 교과과정

| | |
|--|--|
| 첫째날 : 자연을 만나는 날 | 셋째날 : 자연과 하나되는 날 |
| (“하늘·땅·물·벗아 우리 만나자!”) - 환경오염관련 비디오 시청 - 자연을 만나는 시간(환경관련 특강) | (“하늘·땅·물·벗아 우리 뛰놀자!”) - 명상체조 - 물놀이, 고기잡이 - 한마당 놀이 - 촛불 다짐 |
| 둘째날 : 자연과 친하는 날 | |
| (“하늘·땅·물·벗아 우리 사귀자!”) - 명상체조 - 유기농업 현장 방문(감자캐기) - 우리놀이 마당(전통놀이, 농악 등) - 자원재활용 실험(비누만들기 등) - 들판거닐기 - 자기별자리 찾기 | 넷째날 : 자연과 함께 돌아오는 날 (“하늘·땅·물·벗아 우리 약속하자!”) - 명상체조 - 신문만들기 - 귀가 |

<표 3> 천주교 환경학교 개설현황

| 일 자 | 교 육 명 | 대 상 | 참가인원 | 장 소 | 비 고 |
|----------|---------------|-------|---------|--------|----------|
| 92.3.4 | 제1기 천주교 환경학교 | 일반신자 | 115/124 | 명동성당 | 9주간(주1회) |
| 92.9.8 | 제2기 천주교 환경학교 | 가정주부 | 87/91 | 명동성당 | 8주간(주1회) |
| 92.9.8 | 제3기 천주교 환경학교 | 직 장 인 | 50/80 | 명동성당 | 8주간(주1회) |
| 92.10.19 | 제4기 천주교 환경학교 | 청 년 | 29/31 | 구과발성당 | 8주간(주1회) |
| 92.10.22 | 제5기 천주교 환경학교 | 일반/청년 | 108/157 | 청담동성당 | 8주간(주1회) |
| 93.2.4. | 제6기 천주교 환경학교 | 일반신자 | 230/268 | 신정동성당 | 8주간(주1회) |
| 93.3.3 | 제7기 천주교 환경학교 | 일반신자 | 54/65 | 명동성당 | 8주간(주1회) |
| 93.3.4 | 제8기 천주교 환경학교 | 가정주부 | 228/330 | 대치2동성당 | 8주간(주1회) |
| 93.9.14 | 제9기 천주교 환경학교 | 가정주부 | 113/170 | 역촌동성당 | 8주간(주1회) |
| 94.4.6. | 제10기 천주교 환경학교 | 일반신자 | 29 | 명동성당 | 9주간(주1회) |

12) 한마음한몸운동본부(1993). 자연학교 이렇게 했어요. 제1회 천주교 어린이 자연 학교 자료집

2) 천주교 환경학교

천주교 환경학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모두 10기의 환경학교가 개설되었으며, 총 1,043명이 수료하였다. 교육기간은 8주-9주이며, 교과과정은 '생태계', '대기오염', '수질오염', '식품오염(토양오염)', '폐기물과 자원재활용(실습포함)' 등 자연과학적 과목과 '창조질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자연보전과 동양의 지혜', '자연보전과 여성' 등 성서적 접근 및 사회과학적 접근이 6:4의 비율로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3) 청년 환경학교

일반신자 대상의 천주교 환경학교의 교육대상자로 청년들이 수강한 바는 있으나, 교육대

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고, 청년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청년환경학교를 개설한 것은 '94년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청년환경학교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3기에 걸쳐 총 84명의 청년들이 수강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의 다른 환경학교가 강의식이었던데 반해서, 청년환경학교는 세미나 형식을 택했다. 수강생들은 4-5개의 소그룹(마당)으로 나뉘어 지고, 정해진 주제에 대한 강사의 간단한 설명이 있는 후, 그룹 토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내용을 각 소그룹별 대표(마당지기)가 발표하고 공동으로 토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교육과정은 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청년 환경학교 개설 현황

| 일 자 | 교 육 명 | 대 상 | 참가인원 | 장 소 | 비 고 |
|---------|-------------|-----|------|-------|---------|
| 94.2.18 | 제1기 청년 환경학교 | 청 년 | 25명 | 명동성당 | 7주(주1회) |
| 94.5.5 | 제2기 청년 환경학교 | 청 년 | 49명 | 용암동성당 | 8주(주1회) |
| 94.5.27 | 제3기 청년 환경학교 | 청 년 | 10명 | 신천동성당 | 8주(주1회) |

<표 5> 청년 환경학교 교과과정

| 순 서 | 강 의 제 목 | 순 서 | 강 의 제 목 |
|-------|------------------|-------|-----------------------------------|
| 제 1 주 |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 | 제 5 주 | 대안의 에너지 체계 |
| 제 2 주 | 한국의 환경위기 | 제 6 주 |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 |
| 제 3 주 | 지구차원의 환경문제와 갈등구조 | 제 7 주 |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
| 제 4 주 | 우리의 생태계 | 제 8 주 | 환경운동의 실천적 과제 |

4)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는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교회내 모든 환경단체들과 신자들이 참여하는 환경잔치이며, 동시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의 장이다.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는 1994년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매회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았다.

잔치는 시상식과 7개의 마당, 인형극 공연 등으로 나누어지며, 각 마당에는 다채로운 코너가 마련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 기조강연 : 기조강연, '자연사랑이야기' 및 시상식 '천주교 환경상' 시상식, 수상자 및 수상단체 발표
- 전시마당 : 어린이 환경포스터, 환경사진, 재생과정사진 및 재생용품, 쓰

- 레기 분리수거, 지표생물의 전시와 우리 농산물 홍보 등
- 판매마당 : 환경도서, 환경비디오, 환경카드, 우리농산물, 저공해 가공식품, 저공해 공산품 판매
- 교환마당 : 우유곽, 신문지, 빈병, 폐건전지, 맥주캔 등과 재활화장지 및 재생노트 교환
- 실습마당 : 우리밀과 수입밀 비교, 저공해 비누 및 재생종이 만들기, 소음 및 대기오염 측정
- 먹거리마당 : 우리밀 국수, 보리냉면, 동동주, 녹두빈대떡 등
- 노래마당 : 자연사랑, 환경보전과 관련된 가요 및 가곡
- 놀이마당 : 제기차기, 널, 줄넘기, 닭싸움, 투호, 자치기 등
- 인형극 : 환경오염 고발하는 주제의 연극 공연

5) 월례교육

환경학교 수료자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경학교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나 시의 적절한 주제를 중심으로 재교육과 연대의 기회로 개설되며, 월1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2년 11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총 10회 개최되었으며, 매회 참가자는 20명-48명이나 점차 수강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V. 한국천주교 환경교육의 발전방향

1. 환경보전운동 및 환경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1) 교회 구성원의 환경보전운동 참여

교회 구성원(신자)의 환경보전운동 참여 잠재력(또는 지지도) 및 현황을 1993년 초¹³⁾ 이 조사한 결과는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와 “교회가 나설 수도 있다.”는 가 98%로서 교회의 환경보전운동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실제 환경보전운동에의 참여 현황은 교회안과 밖의 단체에 참여가 14%정도로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나, 가입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47%로서 상당수의 구성원이 계기가 마련될 경우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내 구성원들이 교회의 환경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면서, 실제 참여도는 10%를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자들의 이원적 신앙구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신자들은 信仰과 現實, 教會와 世上, 聖과 俗을 분리시키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靈과 肉의 이원적, 기계적, 환원적 사고방식 때문에 신앙과 생명운동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본당간에, 교우간에, 신자간에 그리고 사목자 간에 연대가 잘 되지 않는다.¹⁴⁾

<표 6> 교회의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구성원의 지지

| 설문내용 | 응답자(명) | 비율(%) |
|--------------------|--------|-------|
|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200 | 88.1 |
| 교회가 나설 수도 있다. | 22 | 9.7 |
| 정부나 다른 민간단체로서 족하다. | 1 | 0.4 |
| 교회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 | 1 | 0.4 |
| 잘 모르겠다. | 3 | 1.3 |

설문: 교회의 환경보전운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전의찬, 1993년 6월 5일, 천주교 신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4) 한국종교인평화회의(1993). 종교와 환경. 환경윤리종교인선언대회 기념자료집, 267-268

〈표 7〉 구성원의 환경보전운동 참여 현황

| 설문내용 | 응답자(명) | 비율(%) |
|--------------|--------|-------|
| 예(교회내 단체 참여) | 18 | 8.2 |
| 예(교회밖 단체 참여) | 11 | 5.5 |
| 장차 가입할 예정이다. | 103 | 47.0 |
|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 80 | 36.5 |
| 할 생각이 없다. | 7 | 3.2 |

설문 : 환경보전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2) 환경교육의 필요성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전무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92년 쉼¹⁵⁾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인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90%가 민간주도+정부후원 형태의 환경교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또, 1993년 쉼이 교회의 환경보전운동 내용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응답자의 30%가 '환경교육'과 '환경보전실천'을 교회 환경보전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평가하였다. 효과적인 교회 환경보전운동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응답한 사람도 2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의하여 서울 대교구는 1994년부터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각 본당에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생협'을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표 8〉 교회의 환경보전운동 내용과 관련된 설문

| 설문내용 | 응답자(명) | 비율(%) |
|---------------|--------|-------|
| 오염도 조사 | 7 | 2.6 |
| 환경오염 정화작업 | 19 | 7.1 |
| 환경교육 | 74 | 27.7 |
| 환경보전실천 | 77 | 28.8 |
| 반대운동(서명, 시위등) | 25 | 9.4 |
| 유기농산물 직거래 | 65 | 24.3 |

설문 : 교회의 환경보전운동은 어느 것이 효과적인

까요?

2. 地區 및 본당차원의 환경교육 강화

한국천주교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교육은 교구의 중심인 명동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같은 장소에서 학교를 개설할 경우 수강생의 모집 등에 어려움이 많다.

실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환경학교가 개설되었던 92년도의 제1기 환경학교의 경우, 100명이 넘는 인원이 수료하였으나, 10기 환경학교의 경우 29명의 수강생만이 수료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명동성당의 접근성이 용이한 직장인을 대상으로하는 환경학교, 또는 수강생이 제한되고 높은 강의의 질이 요구되는 중급 및 고급수준의 환경학교의 경우에는 명동성당에서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특별별로 1년에 1회 또는 2회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천주교의 환경교육은 지역별 특성을 세우고, 수강생들을 지역적 연고로 묶는데 효율적인 개별 본당 또는 地區¹⁶⁾차원의 환경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강의 내용이나 강사선정에 있어서, 본당이나, 地區측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강자와 강사의 성향이 서로 맞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료자들의 활동이 미비한 것은 교구차원으로 교육을 받았으나, 본당차원에서의 활동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당 차원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운동의 정신적 측면과 조직의 결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교구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또, 地區(또는 본당)차원뿐 아니라, 단체(예; 주일학교 교사연합회 또는 각 본당의 주일학교

15) 전의찬(1992).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와 사회 환경교육. 환경교육, 제3권, 47-53

16) 지구는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몇개의 성당을 묶은 교구의 하위조직으로, 서울대교구에는 모두 12개의 지구에 167개 본당이 소속되어 있다.

교사 대상)에 대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이며 또한 시급한 일이다.

3. 교과과정의 다양화

교과과정은 그동안 한두차례 개선된 바 있으나, 자연과학적인 내용 5강좌와 신앙과 관련된 내용 3강좌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환경학교 교과과정 구성은 천주교의 환경교육에 대한 당위성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총 8강좌에 불과하다 보니, 주제가 너무 단순하고, 원론적인 내용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과과정을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초급과정, 전문지식을 넓히는 중급과정, 활용성과 환경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고급과정으로 세분화하고, 각 하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상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급과정을 이수한 자들을 앞으로의 환경교육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 각 과정별 프로그램도 개설당시의 사회적 Issue 또는 개설 지역의 특성, 또는 수강자의 특성(나이, 성별, 소속단체의 성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중급이상의 교육과정에서는 최근의 청년환경학교 교육과정에서 시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세미나 형식의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전문가의 확보 및 천주교 환경연구소의 개설

환경학교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는 강사 또는 세미나를 이끌 전문가의 확보이다.

현재까지는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문가들을 그때 그때 섭외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강사의 사정에 따라 강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며, 천주교 환경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강사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초에 환경학교 일정을 확정하여 전문가를 사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천주교 환경보전운동을 영성적 측면과 자연과학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각종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확산하며,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천주교 차원에서 환경연구 등을 수행할 (가칭) '천주교 환경연구소'의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교육후 계속활동의 강화

환경교육 수료후 계속 활동문제는 천주교 환경학교 뿐아니라,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환경학교' 수료자들은 대부분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육후 이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월례강좌뿐이다. 그러나 현재 월례강좌의 경우, 매회 참석자가 20-30명 수준이며 그나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월례강좌가 수료자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수료인원이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수료 기별 중심의 조직은 활동공간이 본당을 떠나 있으므로 뿌리내리가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환경보전운동이 본당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차는 수료자가 자연스럽게 어느 본당의 '한마음한몸운동 환경실천부' 또는 「하늘·땅·물·벗」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활동공간을 확보면에서나 회원들의 친밀감, 그리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당분간은 잠정적으로 현재의 조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예; 어느 산이나 강 또는 성지의 자연보전이나 환경정화 운동, 유기농산물 재배 지원 및 판매 활동, 환경시설의 견학, 환경오염지역의 답사, 각종 환경부조리 고발(예;매연차량, 쓰레기 노천소각, 골재운반차량의 비산재 등))을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대감을 갖고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6. 전담 사제 및 전임 요원의 증원

한마음한몸운동 환경보전부가 1994년 생활 실천부로부터 독립되고, 부장 神父가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부장 神父가 8000여명의 신자가 소속된 본당의 주임신부도 겸임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부 독립이전과 인력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천주교내의 공식단체화 되면서 활동 내용과 활동영역의 제한을 받는 등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고, 공식단체로서 기대할 수 있는 천주교의 공조지활용도 현재로서는 전망이 부정적이다.

한국천주교내의 환경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사목 전담사제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동시에 현재의 간사외에 유급이던 자원봉사이던 Full time요원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또, 神父의 역할이 본당의 운영, 신자들의 영성적 활동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주교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神父들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런면에서, 1993년 5월 이래, 1994년 7월까지 13차 모임에 이르기까지 50여명의 사제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全國環境司祭' 모임은 앞으로 그 역할이 많이 기대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신부들은 각각의 소속 본당에 본당 「하늘·땅·물·벗」을 이미 결성하였거나 곧 결성할 예정이다.

V. 결 론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및 국민 개개인의 환경에 대한 진실되고 실질적인 인식의 변환이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각 계층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 국민들은 학교과정을 통하여 환경교육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러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환경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300만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종적인 유대가 강하여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큰 한국천주교를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보는 천주교의 시각, 천주교내에서 환경보전운동 및 환경교육의 전개과정, 그리고, 환경교육과정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현재까지, 한국천주교의 환경보전운동과 환경교육은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 환경보전부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교회내 구성원들의 환경보전운동 및 환경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한 차원 높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地區차원의 환경교육 강화, 교과과정의 다양화, 전문가의 확보 및 천주교 환경연구소의 개설, 교육후 계속활동의 강화, 전담사제 및 전임요원의 증원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90, 「세계평화의 날 담화문」
- 「구약성서」, 창세기1장
- 박종대, 1993, 「그리스도와 환경위기」, 「환경운동연합 환경전문강좌자료」, pp.1~2
- 심상태, 1991,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 신앙」, 「신학전망」, 92호, p.101.
- 전의찬, 1992,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와 사회환경교육」, 「환경교육」, 제3권, pp. 47~53.
- 최두하, 1994,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 「제1회 청년환경학교 자료집」.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1993, 「종교와 환경」(환경윤리종교인선언대회 기념자료집), pp. 267~268.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993, 「자연학교 이렇게 했어요」(제1회 천주교 어린이 자연학교 자료집).
- WARC(세계개척교회연맹), 1989,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서울대회보고서), 대한기독교서회, pp.50~57.